

통합학급에서의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예원*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 방법 및 과정 | 참고문헌 |
| III. 프로그램의 효과와 수정 요구사항 | Abstract |
| IV. 프로그램 구성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감각통합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뇌에서 감각정보를 조직화하는 과정이다.¹⁾ 감각통합능력은 다양한 감각 경험이 뇌에서 분류, 조절, 조직화, 해석되는 신경학적 감각처리과정으로, 피질하 수준에서 처리되는 전정감각과 촉각, 그리고 고유수용성 감각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²⁾ 이러한 감각처리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 놀이와 일상생활 동작을 포함한 학습과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발생한다.³⁾

아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감각을 통합시킨다. 대부분은 자동적, 무의식적, 그리고 노력 없이 효과적인 감각통합을 한다. 그러나 감각통합장애를 가진 경우는 이 과정이 비효율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노력과 집중을 요구한다. 감각통합장애는 장애아동에서 40~88%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⁴⁾ 감각통합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면, 학습과 발달 또는 행동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각통합 과정의 문제는 장애아동에서 뿐 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에게 학교는 삶의 중심이고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장소이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수행영역 중에 한 가지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감각통합과정에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감각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과정과 개념을 이해하고 운동을 학습하며 행동을 계획하고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며, 이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습의 문제를 가져올

* 청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nikia@cje.ac.kr

1) 홍은경, 김경미(2009), 그룹감각통합치료가 아동의 놀이와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7(1), p.13.

2) 정희정, 홍혜전, 노정식, 최지희, 김은형(2019), 발달장애아동의 운동수행력 향상을 위한 감각통합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 '춤추는 예술가' 개발 및 효과 검증, 『무용역사기록학회』 55, p.31.

3) 홍은경, 김경미(2009), p.14.

4) 앞의 글, p.13.

수 있다.⁵⁾

감각통합 이론의 창시자인 Ayres(1979)는 감각통합이란 촉각, 전정 및 고유수용성 감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들이 바탕을 이뤄 중추신경계가 성숙을 하면서 이 3가지 감각을 기초로 반사 통합과 자세 반응이 형성되고, 성숙된 운동기술로 자라며 이후 집중력, 조직화, 자존감, 학습능력이라는 발달의 최종 산물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단계는 다음의 4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1단계는 촉각 감각이 통합되어 환경탐색의 기초인 신체 도식을 형성하는 것, 마찬가지로 전정 및 고유수용성 감각이 통합되면서 조직화된 안구운동, 자세, 신체적 균형 및 근긴장 조절 및 움직임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단계는 신체지각, 양측 협응, 운동 계획, 활동 수준, 주의력, 정서적 안정감으로 자라고, 3단계 통합에서는 청각과 시각의 감각통합 기능향상으로 목적지향적인 움직임 행동이 가능해지고, 4단계에 가서는 전반적인 뇌기능의 통합으로 발달에 적합한 적응행동 및 자기조절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동들이 발달연령에 적합한 인지, 운동, 정서, 사회성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는 기초 기능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기 및 학령기까지 다양한 움직임 자극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감각통합치료 이론가 학자들은 신경발달학적 성숙을 위해서는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성 감각이 풍부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⁶⁾

감각통합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료적 관점에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장애아동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다. 2020년 현재까지 감각통합치료 관련 연구들은 300건의 석박사 논문과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를 중심으로 300건 이상의 학술논문이 보고되었다.⁷⁾ 감각통합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해서도 유아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몇 편의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관련 연구들은 감각통합 프로그램의 교육적 적용을 통해 창의성이나 사회성, 정서의 발달 변화를 보고하였다. 김미자(2016)⁸⁾는 감각통합 음악 감상활동이 만2세반 영아의 자발적 음악 행동과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고승현(2015)⁹⁾, 김지은(2015)¹⁰⁾, 정재희(2016)¹¹⁾, 조민아(2015)¹²⁾의 연구들에서는 음악기반 감각통합 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력, 자아개념, 언어능력, 자기조절력, 기본 생활습관,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과 같이 감각통합치료 관련 연구들에서는 장애아동에게 인지, 언어, 운동능력과 정서적 안정, 사회성 향상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가능한 조기에 감각통합 교육 또는 치료를 시행해서 발달을 촉진시

-
- 5) 박지훈, 이은정, 노중수, 이향숙, 차정진(2010), 방과후 감각통합프로그램(감각통합치료)이 학교에서의 기능적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8(1), p.28(김미경(2003), 감각 통합기능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1(1); 정민예 외(2005),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중과 비례한 책가방 무게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3(1); 신종일 외(2008), 저학령기 아동의 감각통합 기능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 관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16(1) 재인용).
 - 6) 정희승, 김제영(2017), 감각통합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감각조절기능과 사회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학회지』 17(1), pp.41-55.
 - 7) <http://www.riss.kr/search>
 - 8) 김미자(2016), 감각통합 음악 감상활동이 만2세반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과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고승현(2015), 음악기반 감각통합 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0) 김지은(2015), 음악기반 감각통합 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기본생활습관 향상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정재희(2016), 음악기반 감각통합 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자기조절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조민아(2015), 음악기반 감각통합 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¹³⁾ 또한 학교생활 참여가 저조하고 독립적 자조기술 수행과 놀이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 역시 감각통합능력이 지연된 아동이기 때문에 감각통합 장애를 동반하는 발달장애아동과 더불어 감각통합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미세한 운동과 사물을 다루는 능력이 능숙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의미에서 신체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개발할 수 있는 무용의 교육적 적용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무용교육은 몸의 위치 변화에 반응하고, 몸의 부위별 위치에 반응하기도 하며, 신체 움직임을 통해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감각통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한 활동이다.¹⁵⁾

감각통합과 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의승, 김제영(2017)¹⁶⁾, 정희정 외(2019)¹⁷⁾ 등 2편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정의승, 김제영(2017)은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아동에게 감각통합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감각조절 기능과 사회기술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정희정 외(2019)는 발달장애아동에게 감각통합 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운동수행력 향상을 확인하였다.

위의 두 연구는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장애아동의 감각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장애아가 아니지만 감각통합에 문제를 느끼는 아동들을 위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79,711명으로 특수학교 23,776명(29.8%), 특수학급 42,189명(52.9%), 일반학급 13,746(17.3%)이 각각 재학 중이며, 분리교육 상황(29.8%) 보다 통합교육 상황(70.2%)이 우수하다. 이처럼 갈수록 통합교육 상황에서 교육 받게 되는 장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관심과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¹⁸⁾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감각통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아 뿐 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그 대상을 넓히고 교육적 효과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아와 비장애아들이 같이 학습하는 통합학급에 적용할 수 있는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현장 적용성을 탐색하고 성찰하기 위해 특수학급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학급에 적용 가능한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의 연구 문제를 가진다.

첫째, 통합학급에서의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통합학급 교사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통합학급에서의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13) 정희정 외(2019), p.32.

14) 앞의 글, p.32.

15) 앞의 글, p.34.

16) 정희승, 김제영(2017), p.43.

17) 정희정 외(2019), pp.29-53.

18) 강유석(2010), 통합체육수업에서 장애학생의 소외 극복을 위한 통합체육수업모형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보고서.

II. 연구 방법 및 과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장애아와 일반학생들이 공존하는 통합학급에서의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고 반성, 성찰의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질적 연구의 방법을 취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양적 연구의 목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Generalization)이지만 질적 연구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탐색과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적용성(Transferability)에 집중한다.¹⁹⁾ 보그단과 비크렌(Bogdan & Biklen)는 질적 연구의 특징으로 연구자 자신이 주된 연구의 도구라는 점, 숫자가 아니라 말이나 그림의 형태를 띠는 기술적 자료를 사용, 결과나 산물보다는 과정에 관심, 수집한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 의미의 발견이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²⁰⁾

실제로 무용의 치료적, 교육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를 이용해서 다수 발표되고 있었고, 교육현장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에 대한 탐색과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교사들과의 인터뷰, 연구자의 성찰일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동료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목적 샘플링(Purpose Sampling) 방법²¹⁾으로 참여 대상자들을 모집하였다. 통합학급에서의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4명이다. 이들은 C 대학의 특수교육대학원의 ‘동작 치료(Movement Therapy)’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원생들이고 충청권 지역의 초등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의 교사들이다. 참여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했고,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교사(가명)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이미영

특수학교 교사인 이미영은 사범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13년째 충청권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재직 중이다. C대학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 과정에 있으며, ‘동작 치료’ 강의를 수강하면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가 재직하고 있는 학급은 2학년 1명, 5학년 4명, 6학년 1명으로 총 6명이다. 이들은 지적장애 4명, 정서장애 1명, 자폐 1명의 장애정도를 가졌다. 이 중 지적장애 4명은 읽기와 수학에 어려움이 있으나 성격은 온화한 편이다. 정서장애아는 장애는 심하지만 문제풀이가 취미이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바닥에 눕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19) 고경순(2020), 오텍트 무브먼트에 참여한 예술치료사의 경험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7(1), p.24 (William M. K. Trochim(2020), *Research method Knowledge base, Qualitative Validity*, <<http://socialre.searchmethods.net/kb/qualitative-validity/>>, 2020. 3. 6.) 재인용).

20) 이혁규(2005), 『교과교육 현장의 질적연구』(서울: 학지사), pp.20-21 재인용.

21) 고경순(2020), p.25.

나. 이경희

특수학교 교사인 이경희도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18년째 충청권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도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과정에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가 재직하고 있는 학급은 정서장애와 자폐가 동시에 있는 발달지체 1명과 지적·의사소통 장애 3명으로 총 4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학습 결손 때문에 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영과 이경희는 무용치로나 무용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개설된 프로그램이나 연수는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장기 수강을 요구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에 본 연구의 참여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다. 김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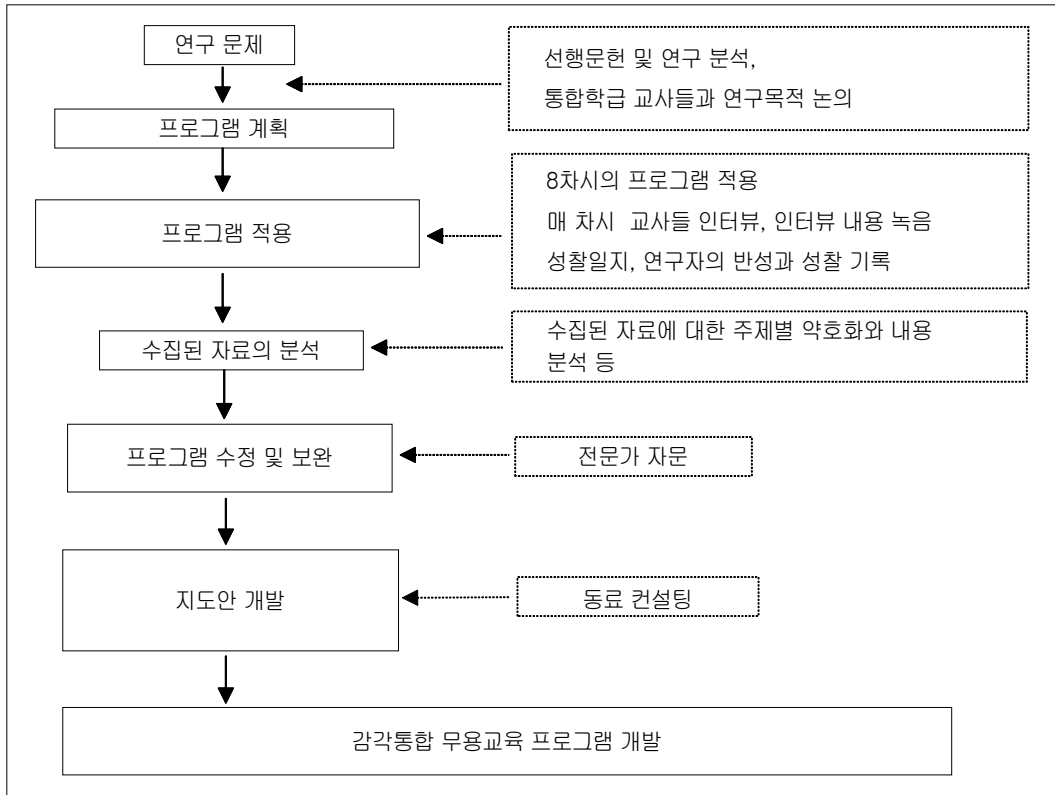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인 김은정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경력 9년의 여교사이다. 그녀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중 5학년이 지적 장애가 1명, 신체 장애가 1명 있다. 그녀는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영어를 전담해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동시에 가르치는 통합학급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녀도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에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라. 송승희

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사인 송승희는 교육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경력 5년의 여교사이다. 그녀는 부산의 예술고등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교육대학에 진학을 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은 그녀가 무용교육에 관심을 갖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였다. 그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관심은 특수교육대학원에서의 진학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현장에서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연구의 과정

본 연구의 전체 과정은 프로그램 계획 및 적용, 프로그램의 수정, 프로그램과 지도안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쳤다(〈그림 1〉 참고).



〈그림 1〉 연구 과정

가. 프로그램 계획 및 적용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 감각통합 관련 선행연구 탐색과 무용치료 및 교육관련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기초 자료를 획득하였다. 또한 통합학급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총 8차시로 계획되었다. 특별히 머티리얼(Material)을 이용해서 다양한 감각을 개발하는 내용이며, 연구에 사용된 머티리얼은 관절인형, 모루, 풍선, 스카프, 파라슈트, 큰천, 바디삭스 등이다. 머티리얼은 무용치료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 활용 수업은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집중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주지된 사실이다. 무용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머티리얼을 활용한 8차시의 전체 프로그램과 각 차시별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계획되었다.

프로그램 적용은 2020년 6월부터 8월 초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C 교육대학교 무용실에서 진행되었다. 각 차시는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80분(40분씩 2차시) 수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수업 적용 후 인터뷰 시간을 가져서 매차시 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각 차시 수업은 ‘내 몸 깨우기’ - ‘춤추기’ - ‘마음나누기’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내 몸 깨우기’에서는 호흡하기, 내몸을 문지르고 두드리는 감각 깨우는 활동, 간단한 스트레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춤추기’에서는 머티리얼의 탐색, 이를 활용한 움직임 표현, 관계의 변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마

음나누기'에서는 굿바이 댄스, 호흡하기, 친구와 느낌 나누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매 차시마다 수업 종료 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고, 수업분석을 위해 수업영상이 촬영되었다. <그림 2>는 프로그램 적용 장면이다.



〈그림 2〉 프로그램 적용 장면

나.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수정

본 연구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자료 수집의 대상은 교사들의 인터뷰 자료, 수업 동영상, 연구자의 성찰일지, 전문가의 자문회의 자료 등이다.

참여 교사 대상의 인터뷰는 8차시 수업에서 매 차시별 수업이 끝난 후 20-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수정할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또한 각 수업은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되었다.

연구자의 성찰일지는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그리고 연구의 결과인 프로그램 개발 단계까지 기록되었다. 성찰일지에는 각 단계에서 어려웠던 순간, 의미있었던 순간, 차시별 반성과 성찰의 내용들이 기술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 수업 동영상, 성찰일지 등은 주제별 번호를 부여하고 각 번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한 곳으로 모아서 파일을 만드는 주제별 약호화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통한 삼각검증법을 적용하였다.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 프로그램과 지도안 설계

프로그램 적용 후 인터뷰, 성찰일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은 이를 구체적인 교수 학습방법으로 풀어내는 지도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 교사들이 프로그램 내용과 본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지도안을 만들고 이것을 동료 컨설팅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나의 지도안에 대해 다른 교사들이 지도안의 목적과 내용의 연계성, 장점, 수정할 사항 등을 컨설팅하는 것이다. 각 지도안은 수업의 인적구성, 물리적 사회적 환경, 학급에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III. 프로그램의 효과와 수정 요구사항

교사들 인터뷰에서 수집된 내용은 크게 ‘프로그램의 효과’와 ‘수정 요구사항’으로 분류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세가지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는 감각통합, 자존감과 소속감 확대와 같은 정서적 효과, 쉽고 재미있는 수업 등의 내용이었다. 수정 요구사항은 창의적 표현, 파라슈트 활동, 바디삭스, 그림 전시물 등의 활동에서 내용이 제기되었다.

1. 프로그램의 효과

가. 감각통합

교사들은 관절인형, 모루, 풍선, 스카프, 파라슈트, 큰 천, 바디삭스 등 머티리얼을 활용한 활동에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통합하는 효과를 이야기 하였다. 무엇을 잡고 움직이는 활동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조작하는 활동들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 각 부위를 이해하고 움직임으로써 신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체 조절과 같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루의 가장 큰 장점은 관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신체 부위들을. 아이들은 움직여도 자기 신체부위를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모루인형을 통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연구자, 2차시)’

‘일반교과 뿐 아니라 영어시간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풍선을 터치하는 부위를 핑거, 헤드 이렇게 영어로 해주면 재미있을 거 같아요. 신체 다양한 부위를 터치하면서 신체부위들을 인식할 수 있구요.(김은정, 3차시)’

‘모루인형도 그렇고 풍선도 이걸 어떻게 쓸까 라는 것 보다 관찰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 물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생각하게 되어서 좋았구요 풍선 움직임을 따라하는 활동에서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표현하게 되어서 재밌었어요.(송승희, 3차시)’

‘저학년 아이들이 뭐가 쥐는 힘도 부족하고 촉감 이런 거 되게 둔하잖아요 하면서 감각을 개발하기 좋을 거 같아요 지난번에 공 가지고 연상하게 했었는데 그것처럼 공은 고정된 물체이지만 스카프는 계속 움직여서 공이랑 다른 방식으로 연상해서 표현하기 좋은 것 같아요.(송승희, 4차시)’

‘뭐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사용하려고 했었고 소재가 좋았던거 같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기에. 잘 구부러지기도 하고 가볍고 소재가 좋고, 감각을 자극시키기에 좋아요, 스카프로 빨래하기도 그렇고 느껴보고 만져보고요. 스카프가 감각을 개발하기에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여러 가지이고 느낌도 좋고 재질도 여러 가지이고요.(이정희, 4차시)’

‘아까 스카프를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던지고, 흔들고, 짜기도 했잖아요. 이 짜는 활동이 아이들 감각을 개발하기에 대게 좋은 거 같아요.(송승희, 4차시)’

나. 정서적 효과 : 자존감, 소속감 확대

머테리얼을 타인과 공동으로 조작하는 활동은 감각통합 뿐 아니라 정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특수학급 교사들은 이 부분에 특히 의미를 두었다. 통합학급이나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은 체육수업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고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이러한 경우에 본 활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존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무용 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아의 심리적 치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²²⁾

‘특수학습 친구들은 지체장애가 심한아이들도 있지만 곁에서 보기에 전혀 티가 안나는 아이들,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면 통합학급 친구들과 놀지를 못해요 같이 활동할 때, 아이들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아이들도 어색해하고요, 파라슈트 올리고 내리는 그 상황에서 같이 끼었으면 내가 조금 박자 놓쳐서 튀겨도 이 공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 하는 활동으로 좋은거 같아요.(이미영, 5차시)’

‘모루인형은 걱정인형 만드는 거 같아요 교과에 있거든요 통합 2학년에. 그 걱정인형에 걱정을 얘기하고, 돌맹이에 자기 걱정을 말하고, 걱정인형을 제가 실제로 만들어보니까 괜찮은거 같아요. 걱정인형 자체가 감정이입을 하는, 감정의 휴지통 같은. 모루인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이정희, 2차시)’

‘풍선하나만 주어져도 아이들이 잘 놀거든요. 저는 풍선을 발로 차는 활동을 상징적인 의미로써도 재미있을 거 같아요. 뭔가 날려버리는, 해소하는 의미로요.(이미영, 3차시)’

‘풍선이 정말 별거 아닌데 아이들의 집중을 확 끌어 모을 수 있는건 확실하구요 이름을 불리고 풍선을 가져오는 게임은 아이들한테 좋을 거 같아요. 저희반 아이들은 교실에서 이름불릴 일이 없거든요 한번이라도 자기 이름이 불리면 좋을 거 같아요.(이미영, 3차시)’

‘아까 이름 부르며 자리 바꿨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자리 바꾸는 게임이 있듯이. 한번이라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이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 나도 우리반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활동인 거 같아요.(이미영, 5차시)’

‘큰천에서 서로 이끌며 움직이는 활동은 통합학급에서 친구들과하고 같이 하기에 좋은 활동인거 같아요. 저희반 아이들이 통합학급에서 친구들과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아이들이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해서 우리들도 같이 할 수 있네 하고 생각할 수 있을거 같아요.(이미영, 6차시)’

다. 쉽고 재미있는 수업

본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교사들은 무용치로나 무용교육관련 연수 경험이 없어서 따라가기 어려운 수업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보다 쉽고 재미있는 수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

22) 권선행(2018), 집단무용동작심리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희(2009),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 향상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성주(2006), 무용동작치료가 방임아동의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소연(2010), 무용동작치료가 특수학급 아동의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 적용과 관련해서는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의 경우 놀이를 이용한 활동이 많으나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워 활동 참여가 어려웠었는데 본 프로그램은 그런 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 하였다.

‘특수학급 저희반 아이들 특성상 시작할 때 설명만 하다가 포기하고 교실 올라가 하곤 했는데 이거는 이게 규칙이야 하는 것 없이도 ‘천천히’, ‘빠르게’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게 좋았구요.(이미영, 1차시)’

‘아이들하고 수업하기에 좋은 소스를 많이 얻어가는거 같아서 좋았어요. 특히 제 몸이 이완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재미있었던 수업이어서 좋았구요.(이미영, 1차시)’

‘모루인형 만드는 것도 별거 아닌데 집중이 많이 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거 같아요 수업때 활용하면 재미있을거 같아요 재미있었어요.(이경희, 2차시)’

‘그냥 몸으로 표현하라고 하기보다는 뭘 주고서 하라고 하면 훨씬 쉬운거 같아요. 도구를 이용해서 하면 쉬워요. 저희들은 어려운데 아이들은 진짜 잘할 거 같아요 게임 캐릭터 나타나고요.(이미영, 1차시)’

‘스카프는 공보다 잡기도 좋고 위험하지도 않고 천천히 떨어지고 신체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못하는 친구들도 자극받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공은 수행수준 딱 정해지는데 이 활동은 운동을 못하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운동 못하는 아이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우리아이들은 체육시간 가기 싫다고 해요. 이 스카프 활동을 체육시간에 하면 좋을 거 같아요.(이미영, 4차시)’

2. 수정 요구사항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었다. 본인들은 ‘뇌가 경직’되어서 상상하기 어렵고 새로운 표현이 나오기 어려운 반면 학생들은 창의적인 표현이 쉬운데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그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파라슈트를 이용한 조각상 만들기의 위험요소, 바디샷스 활용의 두려움, 그림 전시물 만드는 활동의 어려움 등이 수정 요구사항으로 제기되었다.

‘풍선을 이용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창의적인 활동은 어려워요 뇌가 경직되어서. 아이들은 잘할 거 같은데(김은정, 3차시) 그래서 이끌어낼수 있는 방법이. 아까 예시로 보여주기는 했는데, 움직임의 탐색을 말로 충분히 되면 더 쉽겠죠, 풍선의 형태는 어떻고, 동그랗고 그것이 가볍게 떠오를 수 있고 땅에 떨어질 수 있고 동그라니까 이런 예시를 들어주면 상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까 상상할 때 구름을 떠올렸던 게 둥둥 떠다니기 때문이죠, 수증기를 떠오를 때도 가볍고 둥둥 떠다니기 때문이죠.(연구자, 3차시)’

‘파라슈트 안에서 조각상 만드는 활동에서 직접 사람이 들어가고 신체부위를 만져서 모방하는 활동은 성추행이나 위협요소가 있을 거 같아요. 만져서 움직임을 추측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수정시켜서 얇은 스카프나 손수건을 이용해서 인형을 덮고 인형의 포즈를 만지고 재현해보면 좋을 듯해요.(김은정, 4차시)’

‘저희반 아이들은 인원이 많지 않아요 정원이 6명이거든요, 정원이 6명 넘는 학교도 있지만. 6명이 훨씬 안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2명이나 3명이 파라슈트를 하기에는 좀 힘들 거 같구요. 그에 반해서 스카프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이미영, 5차시)’

‘파라슈트가 흥미로왔는데 아귀힘이 필요해서 올릴 때는 괜찮은데 내리는 활동은 고학년은 가능한데 저학년들한테는 좀 힘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송승희, 5차시)’

‘바디삭스는 표현하기 힘들었어요, 바디삭스는 아래가 막혀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거 같아요. 바디삭스 보다는 큰 천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니까요 근데 큰 천은 안이 보이니까요.(이경희, 6차시)’

‘바디삭스는 심리치료면에서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큰 아이들은 자기 팔다리를 곁에 내놓고 흔드는 게 위험하거든요, 삭스 안에 넣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수업 전에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마음대로 흔들어봐 하면 신나게 움직이고 발산하고 좋을 거 같아요.(이미영, 6차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그리고 전시하는 활동에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상황을 잘 아니까 분리가 안되는 거 같아요.(이미영, 8차시)’ ‘구체적으로 싫어하는 물건을 그리라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김은정)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지 않고 전시물을 표현하면 재미있을 거 같아요. 2-3개를 선택해서 표현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해도 재미있을 거 같아요.(이경희)’

IV.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는 장애아와 일반학생들이 공존하는 통합학급에서의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을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와 수정 요구사항을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고, 연구자의 성찰일지, 전문가의 자문, 동료컨설팅을 거쳐 프로그램이 수정, 보완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과 지도안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차시	주제	감각	목표	내용
1-2	인형과 함께 춤추기	청각, 고유수용감각	인형을 통해 다양한 신체부위를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다.	▶ 신체의 다양한 부위 움직이기 ▶ 인형의 움직임 탐색하기 ▶ 인형의 움직임 표현하기
3-4	모루인형과 함께 춤추기	청각, 촉각, 고유수용감각	모루인형을 만들고 변화시키며 자신의 신체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다.	▶ 몸으로 인사하기 ▶ 모루인형 만들기 ▶ 모루인형으로 표현하기
5-6	풍선으로 춤추기	청각, 촉각, 고유수용감각	신체 여러 부위로 풍선과 놀고, 그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 풍선의 움직임 탐색하기 ▶ 풍선으로 놀기 ▶ 풍선으로 표현하기
7-8	파라슈트로 놀기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	친구들과 같이 파라슈트를 움직이며 춤출 수 있다.	▶ 파파슈트 탐색하기 ▶ 파라슈트로 놀기 ▶ 파라슈트로 춤추기
9-10	스카프로 춤추기	청각,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	스카프를 탐색하고 그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 스카프 놀이하기 ▶ 스카프 움직임 탐색하기 ▶ 스카프로 춤추기
11-12	큰 천안에서 놀기	청각,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	큰 천안에서 서로 움직임을 이끌고 신뢰의 관계를 만든다.	▶ 친구를 이끌기 ▶ 친구의 거리를 변화시키기 ▶ 큰 천안에서 놀기
13-14	바디작스로 표현하기	청각,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	나비의 이야기를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나비의 성장과정 이해하기 ▶ 스토리텔링으로 춤추기 ▶ 바디작스로 나비이야기 표현하기
15-16	그림으로 춤으로	청각,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	내 감정을 시각매체로 표현하고 이를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리기 ▶ 그림으로 전시작품 만들기 ▶ 작품의 느낌 표현하기

프로그램 적용 후에 교사들과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안을 개발하고자 논의를 하였고 이를 위해 교사들간의 동료컨설팅 과정을 거쳤다. 동료컨설팅은 동료간에 수업 계획이나 실천과 관련해서 내용을 피드백하고 컨설팅 해주는 것을 말한다. 4명의 교사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본인의 교육대상, 사회적 물리적 환경,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지도안을 만들고 동료컨설팅 받았고,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컨설팅으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개발된 지도안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감각통합 무용교육 지도안 예시

일 시	○○○○.○.○○.(수) 2교시	수업 대상	청미래반 학생	
단 원	5학년 〈표현〉 1. 동작 모방하기		수업자	○○○
배움 목표	모루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의 모습을 모방할 수 있다.			
배움 주제	동작을 표현하는 모루 인형 만들기			
학습 자료	PPT, 만들기 동영상, 색모루, 가위			
수업자의 의도	‘인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해 친구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모방하여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음. 나만의 모루 인형을 만들어 인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동작을 표현할 수 있음			
배움준비(5')	주제 확인하기		전체 활동	

- 전시학습 상기
‘인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며 친구 동작 따라하기

- 학습주제 살피기
교사가 보여주는 PPT를 보고 오늘 배울 내용과 과정 익히기

학습주제 : 동작을 표현하는 모루 인형 만들기

배움활동(30')		전체-모둠-전체 활동
-----------	--	-------------

- 동기유발 - 내 몸 깨우기
 -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를 들으며 내 얼굴의 여러 부위 터치하기
 - 노래를 들으며 한명씩 순서대로 손뼉이나 책상으로 장단을 넣고 친구의 장단을 따라 치기
- 모루 인형 안내하기
 - 선생님이 보여주는 모루 인형을 보고 모루인형의 특징 알기
 - 모루 인형의 동작을 보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움직임 따라하기
 - ‘모루 인형 만들기’ 동영상 시청하기
- 모루 인형 만들기
 - 원하는 색의 모루 선택하기
 - 모루 인형의 형태 만들기
 - 모루 인형의 팔, 다리, 관절을 움직여 여러 가지 동작 만들기
- 모루인형의 움직임 따라하기
 - 내가 만든 모루 인형으로 특정 동작 만들기
 - 내가 만든 동작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 친구의 모루 인형을 보고 모루 인형의 동작이 어떤 것인지 내 몸으로 표현하기
 - 각 친구들의 모루 인형 동작을 따라 해 보기
- 정리하기
 - 내가 만든 모루 인형의 이름 짓기
 - 우리 교실에 나의 모루 인형의 자리 만들어 주기

배움정리 (5')	정리 및 평가하기	전체 활동
-----------	-----------	-------

- 배움내용 공유하기
 - 우리 몸의 여러 신체부위의 이름을 말하며 터치하기
 - 친구의 동작을 따라하고, 모루 인형을 만들었던 느낌 공유하기
- 다음 차시 예고하기
 - 풍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사물의 움직임 표현하기

배움확인(평가)	
----------	--

- 교사나 친구의 동작을 따라하며 신체를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가?
- 교사가 이야기하는 내 신체의 부위를 바르게 터치할 수 있는가?
- 모루 인형의 동작을 이해하고, 친구의 모루인형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가?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감각통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아 뿐 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8차시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으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적용, 교사인터뷰, 연구자의 성찰일지, 전문가 자문, 동료컨설팅의 과정을 거쳤고 초등학교 통합학급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통합학급에서의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통합학급 교사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교사들은 감각통합, 자존감과 소속감 확대와 같은 정서적 효과, 쉽고 재미있는 수업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긍정적 측면으로 다양한 머티리얼의 사용을 통해 감각을 자극하고 통합하는 효과를 이야기 하였다. 관절인형이나 모루인형을 통해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감각을 개발하고 스카프, 풍선, 파라슈트, 큰 천, 바디삭스 등을 이용해서 무엇을 잡고 움직이게 하는 활동들이 감각을 자극하고 통합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감각통합 관련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탐색한 타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희정 외(2019)의 연구에서는 감각통합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신체 협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동수행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움직임을 통한 자기표현까지 도모할 수 있다²³⁾는 결과를 얻었으며, 정희승, 김제영(2017)의 연구에서는 감각통합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 적용으로 ADHD 아동들의 감각조절 기능이 변화되었다²⁴⁾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박지훈 외(2010) 연구에서는 방과후 감각통합프로그램이 학교에서의 기능적 과제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²⁵⁾.

또한 통합학급 교사들은 본 프로그램의 정서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머티리얼을 다른 사람과 같이 조작하고 표현하는 활동은 자존감과 소속감을 높이며 이것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공존하는 통합학급에서의 정서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평소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형, 모루, 풍선, 스카프를 활용한 활동들이 학생들의 동기유발이나 재미요소를 찾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파라슈트나 큰천, 바디삭스 등의 머티리얼은 생소했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적 가능성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활동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심리적 효과는 정희승, 김제영(2017)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감각조절기능의 향상은 ADHD 아동들의 사회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각성을 조절하게 해주며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로 인도하며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같은 무용동작을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일치성과 친밀감이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²⁶⁾는 것이다.

교사들은 본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이나 수정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들의 입장에서

23) 정희정 외(2019), p.49.

24) 정희승, 김제영(2017), p.51.

25) 박지훈 외(2010), p.28.

26) 앞의 글, p.52.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파라슈트 활동 중 조각상을 만들고 친구들이 그것을 터치해서 모방하는 활동에서 터치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요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바디삭스 활동에서 바디삭스 안에 들어갔을 때 밀폐된 공간을 두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기되었다. 마지막 차시의 그림 전시물 만드는 활동에서는 활동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둘째, 통합학급에서의 감각통합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세가지로 설계되었다. 첫째, 머티리얼을 활용해 감각을 자극하고 통합시킨다. 둘째, 타인과의 움직임 표현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킨다. 셋째, 상상을 통한 움직임 표현을 통해 무의식적인 감정의 표현을 이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은 차시별 머티리얼(관절인형, 모루, 풍선, 스카프, 파라슈트, 큰천, 바디삭스)에 따라 주제가 정해지고 차시별 목표에 따른 주요감각들 즉 고유수용감각, 청각, 촉각, 전정감각 입력을 촉진하는 활동들이 제시되었다.

각 차시별 내용들은 다음의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인형, 모루, 풍선, 스카프, 파라슈트, 큰천, 바디삭스, 그림 등의 머티리얼을 활용해 움직임 표현을 이끈다. 둘째, 공간·시간·힘 등의 움직임 요소를 적용해서 움직임 표현을 확장한다. 셋째, 혼자서, 둘이서 또는 여럿이서 움직임을 만들고 표현한다. 넷째,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쉽고 재미있게 활동을 이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 현장 적용성과 프로그램 수정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서 현장의 교사들과 예비교사 교육기관의 연구자가 공동의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장 실천 연구, 현장 개선 연구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과 관련해서 몇가지 현실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초등 특수학급 교사나 통합학급 교사들이 무용치로나 교육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연수나 프로그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용치료사들을 위한 전문가 과정, 학회의 연수들은 찾아볼 수 있으나 일반 특수학급의 교사들을 위한 연수기회는 적은 편이다. 전문한대로 무용치료 연수 과정들은 비용이 비싸고 연수기간이 길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보다 많은 관련 연수나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교사들이 창의적 표현을 하는 활동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모든 활동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창의적 표현 활동에서는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것은 이들의 예비교사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무용교육과정의 현실화, 내실화는 예비교사교육 현장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연수나 재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이혁규(2005). 『교과교육 현장의 질적연구』. 서울: 학지사.
- 고경순(2020). 오텍 무브먼트에 참여한 예술치료사의 경험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7(1): 21-42.
- 고승현(2015). 음악기반 감각통합 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선향(2018). 집단무용동작심리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자(2016). 감각통합 음악 감상활동이 만2세반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과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2009).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 향상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은(2015). 음악기반 감각통합 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기본생활습관 향상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주(2006). 무용동작치료가 방임아동의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훈, 이은정, 노중수, 이향숙, 차정진(2010). 방과후 감각통합프로그램이 학교에서의 기능적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8(1): 28.
- 전소연(2010). 무용동작치료가 특수학급 아동의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재희(2016). 음악기반 감각통합 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자기조절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희승, 김제영(2017). 감각통합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감각조절기능과 사회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학회지』, 17(1): 41-55.
- 정희정, 홍혜전, 노정식, 최지희, 김은형(2019). 발달장애아동의 운동수행력 향상을 위한 감각통합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 ‘춤추는 예술가’ 개발 및 효과 검증. 『무용역사기록학회』, 55: 29-53.
- 조민아(2015). 음악기반 감각통합 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은경, 김경미(2009). 그룹감각통합치료가 아동의 놀이와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7(1): 13-14.
- 강유석(2010). 통합체육수업에서 장애학생의 소외 극복을 위한 통합체육수업모형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보고서.
- <<http://www.riss.kr/search>, 2020. 8. 15.>.

논문투고일 2020. 08. 17.
심사일 2020. 08. 24.
심사완료일 2020. 09. 02.

A Research for Development of the Sensory Integrated Dance Education Program in Integrated Classes

Suh, Ye Won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dance education program for sensory integration for general students as well as disabled students with sensory integration problems. For this purpose, the sensory integration dance program and a teaching plan was developed by applying the contents. To this end, it went through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the program, teacher-interview, researcher's reflection log, expert advice, peer consulting, and a program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integrated elementary school was presented.

While it was possible to confirm field applicability and program revisions from the teacher's point of view si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elementary school special class and integrated class teachers, it wa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ecause it was not applied to actual students. Despite this limitation, this research was significant in terms of field practice research and field improvement research in that teachers at the site and researchers at the preparatory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 conducted joint research to improve the educational site.

Keywords: Integrated Class(통합학급), Sensory integration(감각통합), Dance education Program(무용교육 프로그램), Disabled students(장애학생), Teacher-interview(교사 인터뷰)